구약개론반

교재

데이빗리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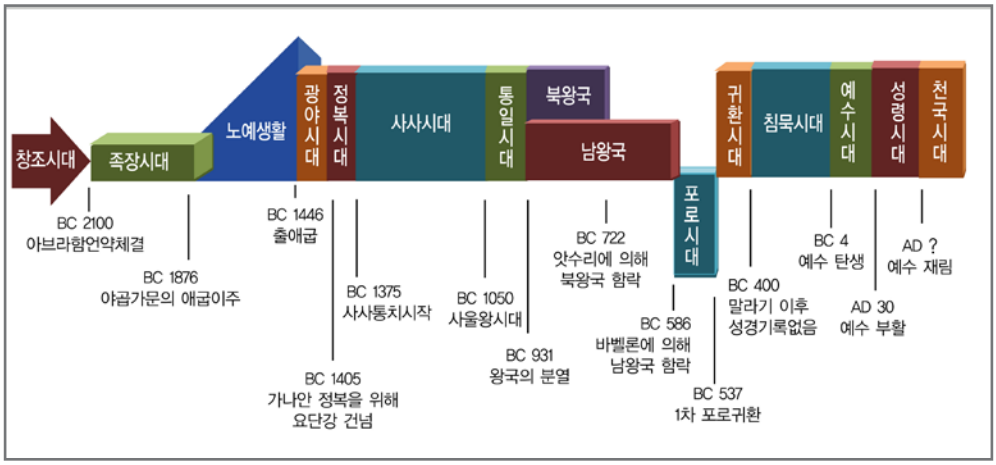
홀리타임즈

목차

CONTENTS

전체요약 시대별 성경구분 _ 8
제 1 장 창조시대 _ 8
제 2 장 족장시대 _ 26
제 3 장 출애굽시대 _ 59
제 4 장 광야시대 _ 76
제 5 장 정복시대 _ 85
제 6 장 사사시대 _ 91
제 7 장 통일왕국시대 _ 96
제 8 장 분열왕국시대 _ 100
제 9 장 포로시대 _ 106
제 10 장 포로귀한시대 _ 110
제 11 장 침묵시대 _ 116

전체요약 시대별 성경구분



간단한 성경역사 요약

- ☐ BC 2100 –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언약체결(창 15장)
- ☐ BC 2876 – 야곱가문의 애굽이주(창 46장, 출 1장)
- ☐ BC 1446 – 출애굽(애굽으로부터 탈출함)(출 12장)

- ☐ BC 1405 –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 건넘(수 3장)
- ☐ BC 1375 – 여호수아가 죽음 후에 사사 시대 열림(삿 1장)
- ☐ BC 1050 – 사울왕의 시대가 시작됨(삼상 9장)
- ☐ BC 931 – 솔로몬 죽음 이후에 나라가 분열됨(대하 10장)
- ☐ BC 722 – 앗수르에 의해 북왕국이 함락됨(왕하 17장)
- ☐ BC 586 – 바벨론에 의해 남왕국이 함락됨(대하 36장)
- ☐ BC 537 – 남왕국 백성이 포로생활에서 본국으로 귀환함(대하 36장)
- ☐ BC 400 – 말라기 이후에 영적 암흑시대를 맞음(말 4장)
- ☐ BC 4 – 예수님 탄생하심(마 1장)
- ☐ AD 30 – 예수님 부활&승천하심(마 28장)

BC(Before Christ) – 예수님 이전시대
AD(Anno Domini) – 예수님 이후시대(Year of Lord)

1 장

/

창조

시대

제1장 창조시대(창1-창2장)

1. 천지창조(창1~창2)

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1)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단세포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창

1:26, 창 2:7).

2)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이다(요 3:16).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모두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1일째(빛), 2일째(물, 궁창), 3일째(채소, 과목), 4일째(해, 달, 별), 5일째(물고기, 새), 6일째(짐승)은 모두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심지어 6일째 만들어진 인간도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이다.
-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안식 또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잘 지키도록 명하신 것도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1일째:
[창 1:5]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일째: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창 1: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3일째:
[창 1: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4일째:
[창 1: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5일째:
[창 1:21]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7일째:
[창 2: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

하신 것이다.

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1)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 암흑가운데 있었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아름답게 창조되었다(창 1:2-3).
-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빛되신 하나님에 의해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새사람이 되었다(벧전 2:9).

2)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막 11:23-24).

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1)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

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 1: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막 11: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님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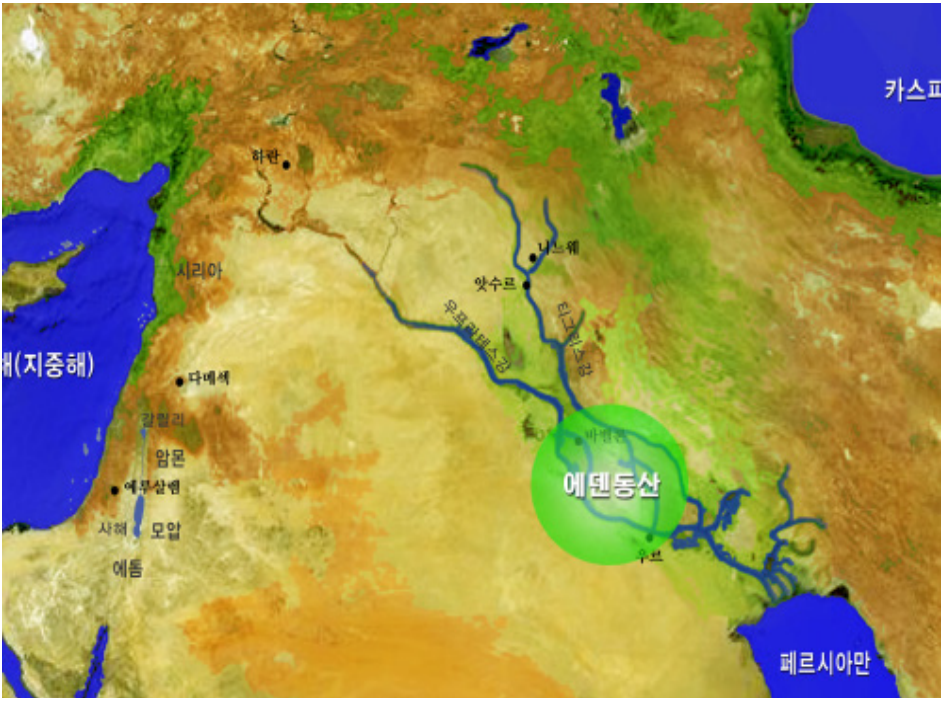
2) 사도요한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했다(요 1:1-3).

3) 사도바울도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다(골 1:14-15).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2. 에덴동산(창2-3장)



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에덴동산을 세우셨다(창 2:8).

1)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후에 천지를 이끌어갈 사람을 만드셨다.

2)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에덴동산을 세우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에덴동산을 세우신다.

[창 2: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나. 에덴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다.

1) 에덴동산은 천국과 같다. 에덴동산에 거하는 자는 천국에 거하는 것이다(계 21:3-4).

2)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 에덴동산에게 쫓김을 당하고 말았다(창 3:23-24). 우리도 죄를 범할 때에 에덴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만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창 3: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 잃어버린 에덴동산이 회복되어야 한다.

1) 죄로 인해 잃어버린 에덴동산은 회개를 통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마 5:3, 시 51:17).

2)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에게 에덴동산을 회복시키신다.

[마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시 51:17]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

3)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니다. 살아서도 천국에 거할 수 있다(마 4:17).

3. 홍수 (창 6-10장)

가. 홍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1)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2)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자녀와 섞이는 것을 의미한다(창 6:1-2).

3)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된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거해야 하기 때문이다(고후 6:14-16).

나. 홍수로 지구가 멸망을 당하였다.

1) 궁창의 물과 땅 속의 물이 땅을 덮었

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마 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창 6: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 6: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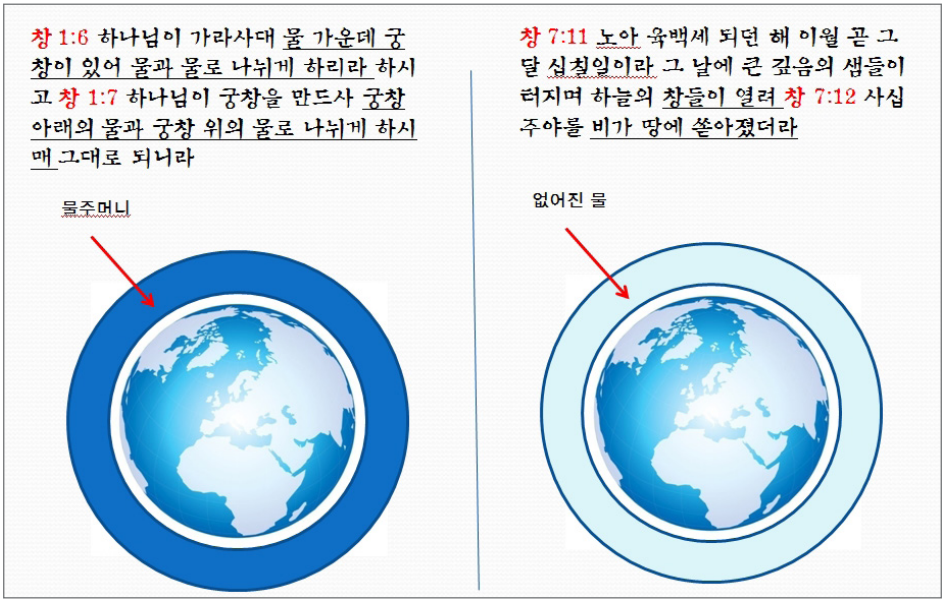
[창 1:6]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다.

-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지구에는 궁창을 둘러싸고 있는 물주머니가 있었다(창 1:6-7).
- 노아의 홍수 때 궁창의 물주머니가 터진 것이다. 또한 땅 속의 물도 땅 위로 올라와서 물이 땅을 덮고 말았다(창 7:11-12).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창 7:11] 노아 육백 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창 7: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 노아의 홍수는 모든 생물을 죽이고

말았다.

- 물고기를 제외한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였다.
- 인간을 포함하여 육축과 공중의 새가 죽임을 당하였다(창 7:23).

[창 7: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다. <u>노아는 제2의 아담이 되었다.</u>

1)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똑 같은 명령을 내리셨다.
   -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은 이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다(창 1:18).
   - 그런데 노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도 똑같은 내용이었다(창 9:1).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 노아를 통해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었다.
   - 노아는 희망의 상징이다.
   - 하나님께서 희망의 표시로 무지개를 띄우셨다(창 9: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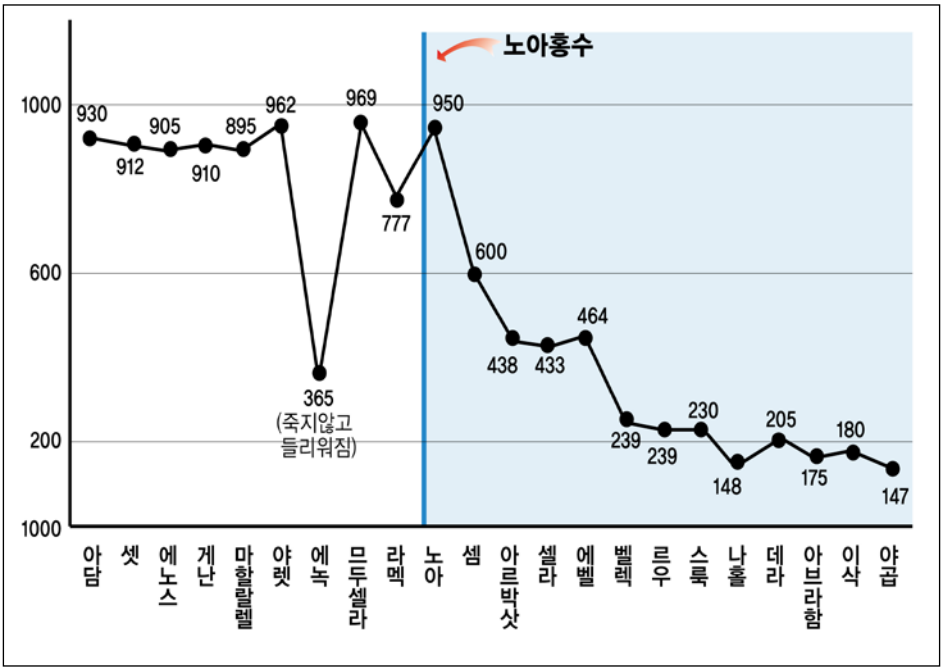
[창 9: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창 9: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 무지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이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같다.

라. 홍수 이후의 변화

1)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다.

- 홍수 이전의 인간의 수명은 평균 900세 이상이었다.
- 하지만 홍수 이후의 인간의 수



명은 점점 낮춰져 120세까지 내려가게 되었다(창 6:3).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수명이다.

2)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의 수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

-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 가셨다(벧전 3:19-20).
-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임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저들을 찾아가셨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벧전 4:6).

[창 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벧전 3:19]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벧전 3: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벧전 4:6]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4. 인류의 번성(창세기 10장)

가. 노아의 아들 셈,함,야벳을 통한 70족속이 소개되고 있다(창 10장).

1) 셈– 아시아 지역
2) 함– 아프리카 지역(가나안포함)
3) 야벳–유럽지역

나. 노아의 아들을 통한 70족속은 전세계 인류를 상징한다.

1) 예수께서 70인 제자를 삼으시고 저

들을 파송하셨다(눅 10:1). 이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함을 뜻한다.

2)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었을 때 70명의 랍비들이 모여서 작업을 했다(혹자는 72명이라고도 함). 그때 만들어진 성경이 '70인역(LXX)'이다. 이 역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함을 상징한다.

[눅 10:1] 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5. 하나님을 향한 대적:바벨탑 (창 11장)

가.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쌓아올린 것이었다.

1) 함의 아들 구스의 자녀 니므롯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영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창 10:8).

2) 그가 시날평지에 사람을 모으고 그곳에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였다(창 11:2-4).

[창 10: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창 11: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창 11: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

나. 바벨탑은 인본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1) 니므롯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백성들을 현혹했다.

- 그래서 그는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하였다(창 11:4).
-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면 누구든지 니므롯이 되며 누구든지 바벨탑을 쌓게 된다.

2)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 하지만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싫어한다.
- 오직 인간의 운명은 인간 스스

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바벨탑의 정체이다.

다. 사탄은 계속해서 니므롯으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한다.

1) 사탄은 계속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연합하게 한다. 이는 마치 니므

롯이 시날평지에 사람들을 모아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창 11:2-4).

2) 사탄은 계속해서 니므롯과 같은 사람을 양성하고 니므롯을 통해 연합기구나 연합단체를 만들고 있다.

- 유엔 창설 (1945년)
- 유럽공동체(EEC)창설 (1956년)
- 국제통화기구(IMF)창설 (1945년)
- 세계은행(WB)창설 (1944년)
- 세계교회협의회(WCC)창설 (1948년)
- 종교단일화운동(에큐메니칼 운동 : Ecumenical Movement)
- 유네스코(UNESCO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창설 (1948년)
- 컴퓨터 발명 (1951년)

[창 11: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창 11: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재건을 위한 출발

제2차 세계대전 후 창설된 세계 연합기구들

정치 → UN.창설 - 1945
유럽공동체(E.E.C.) 창설 - 1956

경제 → 국제통화기구(I.M.F.) 창설 - 1945
세계은행(W.B.) 창설 - 1944

종교 → 세계교회협의회(W.C.C.) 창설 - 1948
에큐메니칼 운동(Ecumenical Movement)

문화 → 국제교육과학 문화기구(UNESCO) 창설 - 1948

과학 → 컴퓨터 발명(Global System 가속화) - 1951

2 장

/

족장

시대

제 2 장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시대 (BC2100년에서 1850년까지 250여년간)를 의미함.

1.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창 12-23장)

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1)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

었다. 갈대아 지역은 에덴동산이 있었다고 추정될 정도로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는 갈대아 지역에서 매우 번성한 곳이었다.

2)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창 12:1).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우 번성할 때 부르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심을 받는 것보다 매사가 잘 풀리고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들게 한다.

3)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행하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하지만 먼저 하란으로 갔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가족의 가장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아버지 데라의 결정대로 하란으로 이주를 했다(창11:31-32).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상당기간 머문 것으로 보여진다. 적어도 그는 아버지 데라가 사망할 때까지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 11: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창 11:32] 데라는 이백오 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

나. <u>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u>

1)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창 12:4-5).

2)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갔다(창 12:4-5).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또한 그는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결코 적지많은 않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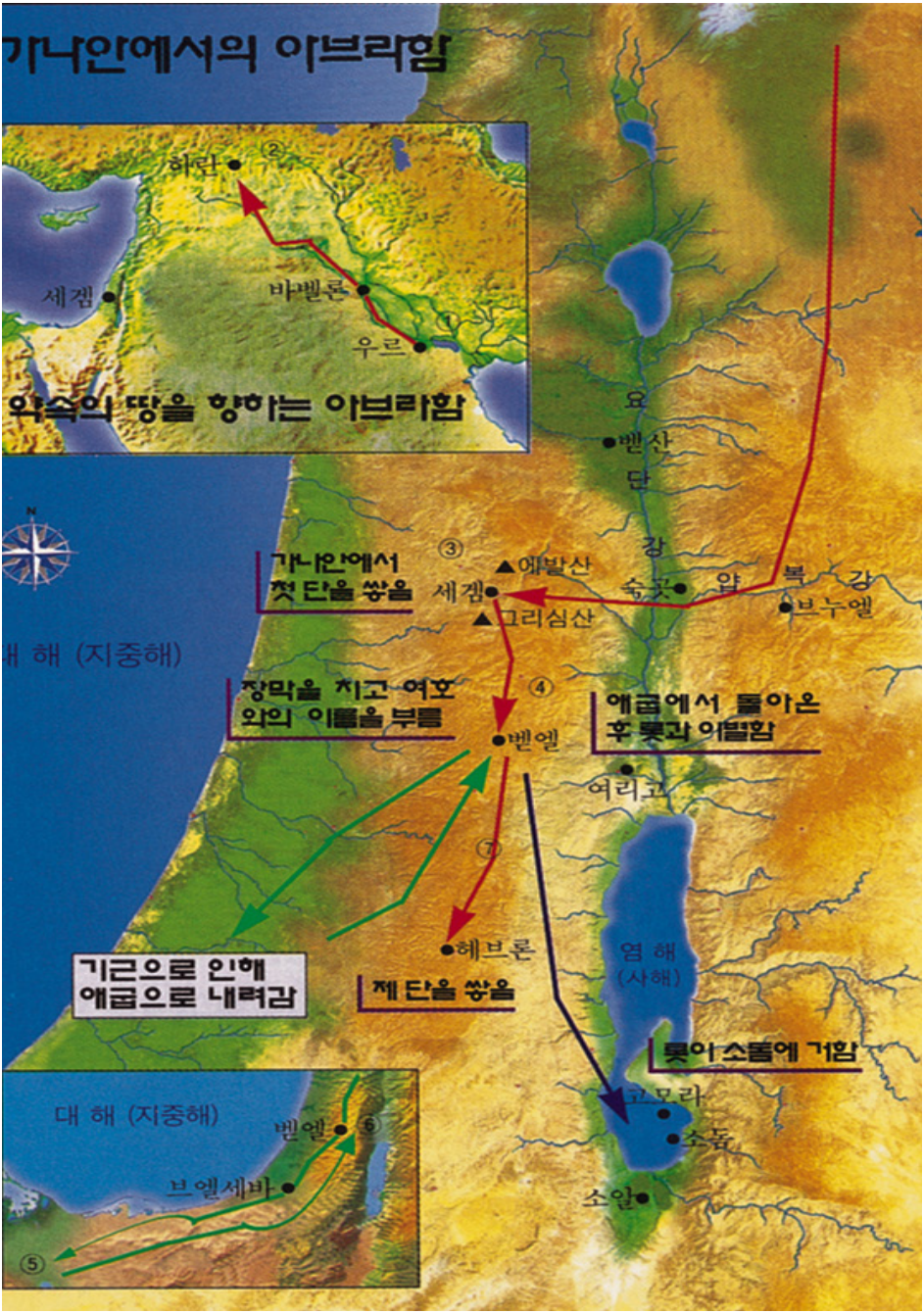
3)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다(히 11:8).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드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갈 바를 알지 못한채 나아가게 하신다.

4) 아브라함은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단을 쌓았다(창 12:7).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겜은 완전한 이방지역이었다. 어쩌면 이방지

[창 12: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오 세였더라 [창 12:5]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창 12: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곳에 단을 쌓고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
하란
②
세겜
바벨론
우르
약속의 땅을 향하는 아브라함
요
밷산
단
강
③
가나안에서
첫 단을 쌓을
▲에발산
세겜
▲그리심산
숙곳
얍
복
강
브누엘
N
해 (지중해)
장막을 치고 여호
와의 이름을 부름
④
벧엘
애굽에서 돌아온
후 롯과 이별함
여리고
⑦
헤브론
염 해
(사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감
제 단을 쌓을
롯이 소돔에 거함
대 해 (지중해)
벧엘
⑥
브엘세바
⑤
고모라
소돔
소알

역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지역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했을 것이다. 그 지역의 문화도 익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단을 쌓았다.

5) 그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길 때에도 제일 먼저 단을 쌓았다(창 12:8). 그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다.

[창 12:8] 거기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벧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u>애굽에서 죄를 범했다.</u>

1)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창 12:10). 가나안 땅은 땅은 너무나 기근이 잦았다. 비가 잘 오지 않았으며 물이 귀한 땅이었다. 목축업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소였다. 우리에게도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

[창 12:10]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해 주는 장소로 둔갑하기도 한다.

2) 아브라함은 아내 사래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다. 이는 그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었다(창 12:11-13).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 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 가느냐가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 떳떳했어야 했다. 그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는 거짓의 아비된 마귀를 따르는 행동이었다(요 8:44).

[창 12: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래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창 12: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창 12:13]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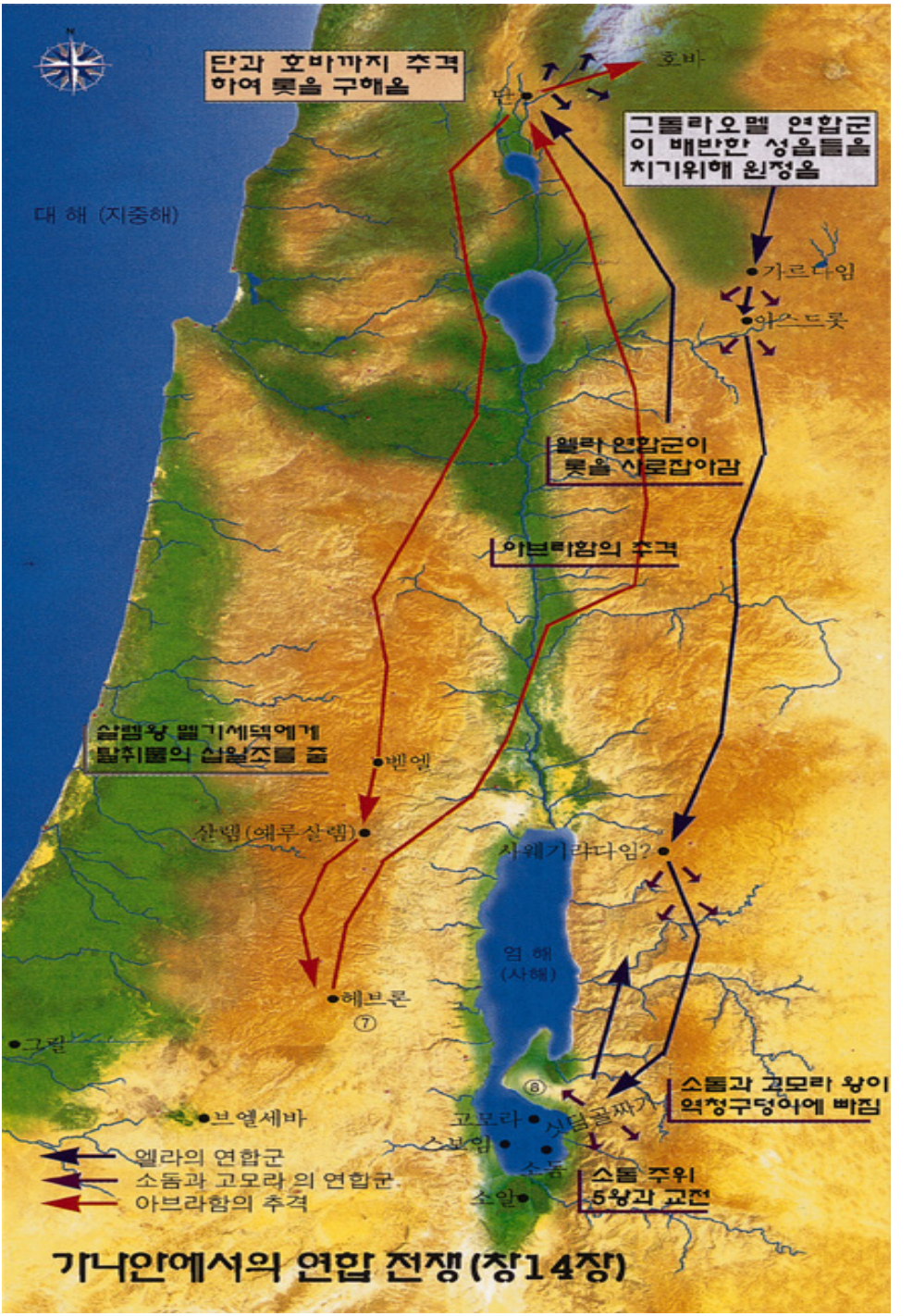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 <u>조카 롯과 헤어졌다.</u>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었다. 그의 조카 롯도 부유하게 되었다.

2) 그들의 부유함이 오히려 저들을 헤어지게 만들었다(창 13:5-8). 우리의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아굴처럼 기도해야 합니다(잠 30:7-8).

[창 13: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창 13:6]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창 13: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창 13: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가나안에서의 연합 전쟁 (창14장)

3)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는 안 되었다. 만일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4) 마귀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헤어지게 만든다. 배우자와 헤어지게 만들고 자녀와 헤어지게 만든다. 성도끼리 헤어지는 것도 모두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잠 30:7]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잠 30:8]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 30: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마. <u>십일조를 드렸다.</u>

1)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창 14:11).

2)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수하 318명을 이끌고 저들을 쳐서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모두 찾아왔다(창 14:14-16).

[창 14: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창 14:12]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네 왕 : 아므라벨 왕 / 아리옥 왕 / 그돌라오멜 왕 / 디달 왕

[창 14:1]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창 14:14]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삼백십팔 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창 14:15]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창

3) 아브라함이 승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취한 것의 십분 일을 주었다(창 14:18-20). 이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린 최초의 사건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왕에게 십일조를 드린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린 것이다. 이는 멜기세덱 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왕이었기 때문이다(히 7:1).

4)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을 받기 위한다면 당연히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십일조를 드린 사람만이 십일조를 통한 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다(말 3:10).

바. <u>자녀를 갖게 되었다.</u>

1)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다. 오랜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음을 뜻

14: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 14: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 14: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히 7: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한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다(시 127:3).

2) 아브라함이 85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5:4-5). 하지만 그 약속은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지금 바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진다.

3)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그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줄 알았다(창 16: 15-16, 창 17:18). 우리도 때때로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줄 알고 잘못 받아드릴 때가 있다. 영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적(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응답인줄로 알고 오해할 수 있게 된다.

4)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아들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얻을 수

[시 127:3]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창 15: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창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 16: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창 16: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이었더라

[창 17: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있었다(창 12:2-3).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창 21:2]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 21:3]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다. 그의 이름이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창 17:4-5).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으로 한 가족의 아버지를 뜻한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 크시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비전의 크기를 바로 알지 못한다.

[창 17:4]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창 17: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창 22:11-12).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으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히 11:17-19).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

[창 22: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 22:12]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히 11: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

상이 되었다.

3)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히 10:38). 오직 의인만이 이기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고 다가올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취할 것이다(계 3:21).

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히 11:18]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히 11:19]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 10:38]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계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2. 이삭: 화평을 이룬 자(창 24-26장)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가. <u>하나님께서 택하신 배우자를 얻었다.</u>

1)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하란 지역에서 찾도록 했다(창 24:3-4).

[창 24:3]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창 24:4]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2)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은 갈대아 우르(Ur)이다. 하지만 그는 하란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겼다. 모든 사람에게는 육적인 고향과 영적인 고향이 있다. 당신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인가?

3)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소생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삼게 되었다(창 24:15).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었다(창 22:20-24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계속해서 그곳에 거주하며 자손을 낳았다.

[창 24:15]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창 22:20]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창 22:21]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므엘과 [창 22: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창 22:23]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창 22:24]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낳았더라

4)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가 선택된 것

은 한 가족 안에서 아내를 찾은 것이다. 이는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과 같다. 믿음의 배우자를 얻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복이다.

나. <u>아버지의 거짓을 그대로 따라했다.</u>

1)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이주했을 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였다(창 26:6-7). 이는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에서 행했던 거짓이었다(창 20:1-2).

2) 아버지의 잘못된 행실이 자녀에게 전이되는 성향이 있다. 술마시며 횡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보고서 자신은 절대로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아들이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와 똑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 제법 많다. 이는 부모의 악한 행위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됨을 말한다.

3) 하지만 결코 아비의 죄악이 자녀

[창 26:6]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창 26:7]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창 20:1]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창 20:2]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에게까지 물려지는 것은 아니다(겔 18:19-20). 모든 죄는 짓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부모의 악한 행위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의 악한 행위를 따라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겔 18:19]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겔 18:20]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 이삭은 화평을 이루는 자였다.

1) 이삭은 주변 사람들과 항상 화평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가 화평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는 주변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한다.

2)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팠다. 그가 우물을 많이 판 이유는 그만큼 우물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가 우물을 빼앗겼을 때에 한번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창 26:20-22). 이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창 26: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창 26: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고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창 26: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3) 이삭을 핍박한 자들이 오히려 이삭

20년동안 지냄
하란
라반의 추격
대 해 (지중해)
라반과 언약 맺음
벧엘
브엘세바
고센
애굽
하란으로의 도피와 귀향
단
하란에서
가르다임
아스드롯
길르앗산지
하란으로
우릿간 지음
천사와 씨름
딸의 강간당함에
대한 아들들의 복수
세겜
숙곳
브니엘
마하나임
얍복 강
에서와 상봉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서원함
벧엘
드보라 사망
세일로 돌아감
베냐민 출생과 라헬 사망
베들레헴 (에브랏)
염 해
(사해)
헤브론
아버지와 상봉
그랄
애굽으로
브엘세바
단을 쌓음
고모라
싯딤골짜기
소돔
도피 귀환 애굽행 에서의 행로
세일(산)에서

에게 찾아와 화평을 요청했다(창 26:26-29).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비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담대하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람과 화평의 관계 맺기를 요구한다.

[창 26:26]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창 26:27]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창 26:28]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창 26:29]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3. 야곱: 사기치는 자(창 27-36장)

가. 벧엘의 하나님을 만났다.

1) 야곱은 팥죽 한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창 25:29-34). 팥죽 한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행위는 분명한 사기행위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러한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가 사기이다. 깨끗치 못한 장사수법 역시 사기이다. 모든 정직하지 못한 생각과 행위가 사기이다.

2)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다. 가장이 가장권세를 소홀히 하거나 목사가 목사권세를 소홀히 하는 것도 죄이지만 장자가 장자권세를 소홀히 하는 것도 죄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3) 사기꾼은 도망자이다. 도망을 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야곱도 도망을

[창 25:29]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창 25: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창 25:31]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창 25:32]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창 25:33]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창 25:34]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쳐야만 했다.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창 27:41).

4)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다. 가는 도중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창 28:15-16). 의인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롬 3:10).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 은혜이다(롬 5:1, 히 4:16).

나. <u>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다.</u>

1)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다(창 28:20-22).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 주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자신의 수입의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 우리도 이러한 서원을 드려야 한다. 야곱의 서원은 일종의 계약이다. 우리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여야 한다.

[창 27:41]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창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 28:16]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롬 3:10]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창 28:20]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창 28:21]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창 28: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신 수입의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3) 비록 우리가 서원한 대로 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서원한 것을 이루신다. 절대로 하나님의 돈은 떼 먹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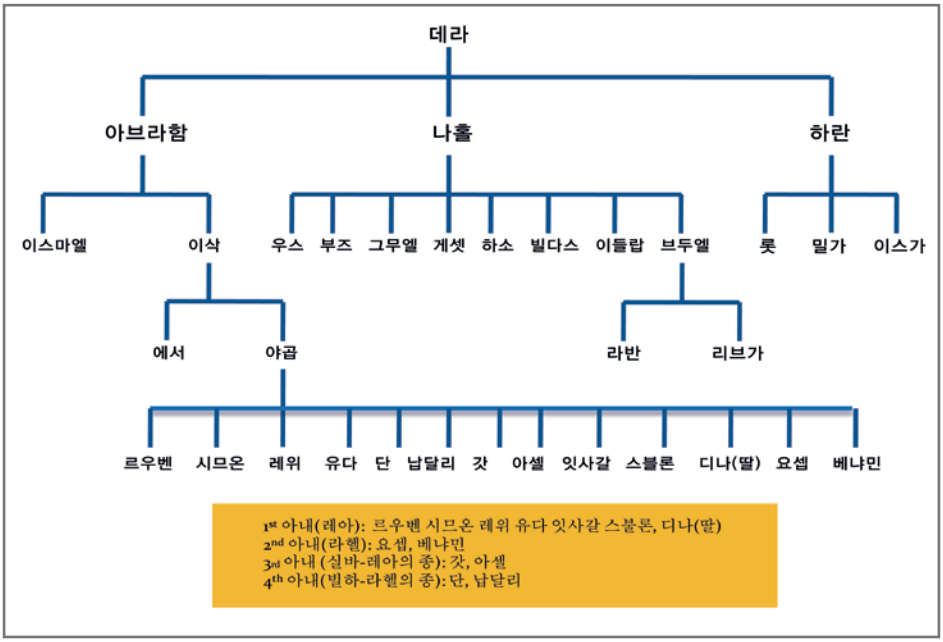
4) 훗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풍성한 재물을 얻어 고향으로 내려 올 때에 벧엘에 들르지 않고서 숙곳을 거쳐 세겜으로 갔다(창 33:17-18). 이는 저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야곱은 세겜에서 엄청난 사건을 당하게 된다. 자신의 딸 디나로 인해 자신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의 모든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창 34:25-27). 결국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벧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창 35:6-7).

다. <u>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셨다.</u>

[창 33:17]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창 33:18]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앞에 그 장막을 치고

[창 34:25] 제삼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창 34:26]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 오고 [창 34:27]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창 35:6]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벧엘에 이르고 [창 35:7]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1) 야곱은 삼촌 라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풍성한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가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20년을 수고해야만 했다.

2) 그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수고해야만 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삼촌 라반은 야곱을 더 부려먹기 위해 레아를 먼저 그의 아내로 주었다(창 29:20). 야곱은 자신

[창 29: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칠년을 수일 같이 여겼더라

[창 29: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칠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이 진정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또 다시 7년을 수고해야만 했다(창 29:30).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당신을 위해 헌신할 대상을 얻기 위해서도 그만한 수고가 필요하다. 사람은 그저 가만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3) 그는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 6년의 수고를 해야만 했다. 재물의 복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남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고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그래야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다.

4)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때에 지혜를 허락하신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여서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다(창 30:31-32). 아롱진 것과 점있는 것과 검은 것은 정상적인 양과 염소가 아니다.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그런 양과 염소가 나올 확률은 극히 적다.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

[창 30:31]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 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창 30: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삯이 되리이다

에서는 지극히 낮은 확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매우 높은 확률이 된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라. <u>하나님과 씨름해야 복을 받는다.</u>

1)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다. 그는 얍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천사들과 씨름을 하였다(창 32:24-25). 그가 홀로 남게 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먼저 자신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보낸 것이다. 두려움에 쌓인 상태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했던 것이다. 우리도 때로는 천사와 씨름을 한다. 천사와 씨름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이다.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다.

[창 32: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창 32:25]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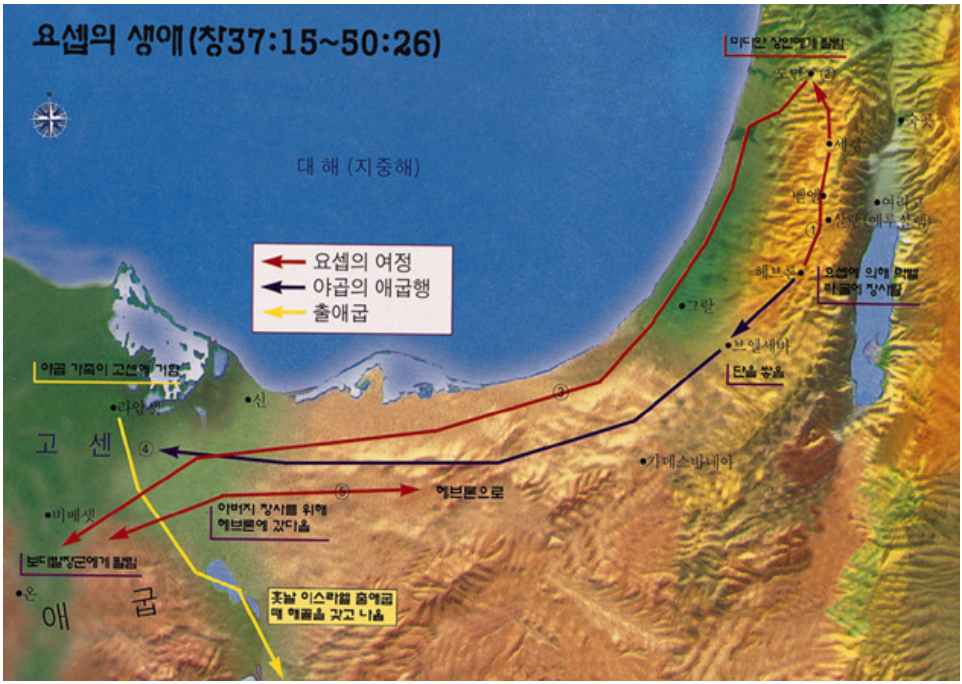
당신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가?

2)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다(창 32:26-28). 천사가 날이 샐려고 할 때에 가려고 했으나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보내주지 않았다.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3)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받게 되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뜻한다. 사기꾼이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야곱이라는 뜻이 '속이는 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과 겨룬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라는 뜻으로도 사용한다.

4) 우리의 삶도 죄인이 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는 사기꾼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건보다

[창 32:26]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 32: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창 32:28]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더 큰 사건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당신은 아는가?

4. 요셉: 꿈꾸는 자(창 37–50장)

가. <u>요셉은 고난 중에 성장했다.</u>

1)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창 37:3).

[창 37: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2)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그의 고난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버렸다(창 37:28). 때때로 인생의 환난은 매우 풍족함이 있을 때 찾아 온다. 그래서 우리는 풍족할 때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기 때문이다.

[창 37:28]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고 은 이십 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예로 끌려간 요셉에게 임하였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창 39:1-4).

[창 39: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창 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 39:3]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 39:4]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4)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요셉은 정치인들이 붙잡혀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창 39:20). 요셉에

[창 39: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게 있어서는 매우 끔찍한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악인의 옭가미에 걸리고 만다.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악인들에게 항상 우리는 노출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5) 그런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을 방문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의 전옥으로 하여금 요셉을 끔찍히 사랑하도록 하셨고 전옥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제반사항을 맡겼다(창 39:21-23).

[창 39: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 39:22]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창 39:23]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나. <u>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u>

1)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가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된 것도 따지고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이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가 무슨 꿈을 꾸었을지라

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것이다.

2) 요셉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3)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홀로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4) 만일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u>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u>

1)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나는 사람과 장소를 최대한 기회

로 삼았다.

2) 그는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에게 그들이 복귀할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다(창 40:9-14). 불과 청년에 불과하고 아무도 모르는 일개 이스라엘 부족의 지극히 작은 자였던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자신의 복귀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기회를 노렸던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3) 요셉은 술관원장에 의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된다(창 41:25-37). 요셉의 꿈해석은 너무나 놀라웠다. 그래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까지 요셉의 꿈해석에 감탄했다.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과 신하들이 일개 조그마한 부족의 지극히 작은 죄인 청년의 말에 그토록 감탄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임하였던 것이다. 요셉에게 이러한 지혜가 임하였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

[창 40:9]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창 40:10]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창 40:11]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창 40: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창 40: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창 40:14]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창 41:25]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창 41:26]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창 41:27]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창 41:28]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창 41:29]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창 41:30]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창 41:31]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창 41:32] 바로께서

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요셉만이 신통한 꿈해석을 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

4) 이러한 꿈해석은 하나님과 매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다니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환상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에 여러 왕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심지어 다니엘은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어떤 꿈을 꿨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창 41:33]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창 41:34]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창 41:35]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창 41:36]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창 41:37]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 <u>요셉에 의해 이스라엘이 세워졌다.</u>

1) 요셉은 지극히 작은 자였으나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었다. 만일 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부족에 불과했을 것이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출 19:6).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용을 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 나라가 살 것이다.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3) 애굽으로 건너온 이스라엘의 수는 모두 70명이었다(창 46:26-27). 70명이 어찌 국가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저들을 애굽 땅에 앉히시고 저들로 하여금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민족을 세우시고자 준비하고 계실지 모른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지 모른다.

[창 46:26]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육십육 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창 46:27]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칠십 명이었더라

3 장

/

출애굽 시대

제 3 장 출애굽시대(출애굽기 ~ 신명기)

1. 애굽의 노예생활

가. 요셉이 죽은 이후의 고난

1)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해졌다(출 1:7).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출 1:8).

2)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급속히 번성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애굽의

[출 1: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 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다(출 1:9-14).

나. 이스라엘 사내아이를 죽이게 함

1) 심지어 애굽 왕은 산파에게 이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출 1:16-17).

2)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아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법으로 세워버린 것이다(출 1:22).

2. 모세의 출생

가. 모세가 태어났다

1) 이스라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할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출 2:2).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었다(출 6:20). 아므람은 그의 고모 요게벳을 통해 모세를 낳은 것이다.

[출 1:9]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출 1:10]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출 1:11]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 1:12]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출 1:13]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출 1:14]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출 1:16]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출 1:17]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출 1:22]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출 2:2]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달을 숨겼더니

[출 6:20]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일백삼십칠 세이

2) 성경은 요게벳이 레위의 딸로 말하고 있다(민 26:59). 그녀가 레위의 딸이고 아므람이 그녀의 조카라면 모세까지 불과 5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레위–고핫–아므람–모세 5대밖에 안 되는 세월동안에 70명이 20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애굽생활이 430년이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해석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출 12:40).

3) 모세와 거의 비슷한 나이에 속하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10대 손으로 기록되고 있다(대상 7:23–27). 이를 통해 모세의 족보는 대략적으로 6대 정도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모세의 성장

1)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출 2:3)

었으며

[민 26:59]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출 12: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지 사백삼십 년이라

[대상 7:23]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대상 7:24]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니 저가 아래 윗 벧호론과 우센세에라를 세웠더라 [대상 7:25]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한이요 [대상 7:26] 그 아들은 라단이요 그 아들은 암미훗이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대상 7:27]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출 2:3]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고

2) '갈대상자'〈테바〉는 ark로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듯 모세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다.

3)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상자를 지켜보았다(출 2:4).

4)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발견하였다(출 2:5-6). 시녀들이 갈대상자를 발견하였고 그 상자를 바로의 딸에게 보여줬다.

5)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나아가 모세의 어미로 하여금 젖을 먹여 모세를 키우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출 2:7-9).

6) 바로의 딸은 모세를 그의 아들로 삼았다(출 2:10). 바로의 딸은 '하쳅수트'(Hatshepsut)이다. 그녀는 18대 왕조의 2대 왕 아멘호텝의 무남독녀로서 그녀가 왕이 될 수 있었으나 그의 남편 투트모스2세에게 왕위를 양보하였다. 투트모스2세는 왕위에 오른지 10년만에 죽고 말았

[출 2:4]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출 2: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출 2:6]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출 2:7]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출 2:8]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출 2:9]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삯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출 2:10]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다. 그가 죽을 때 자신이 양자로 삼은 투트모세3세를 왕위에 세웠는데 그당시 투트모세3세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하첩수트가 대신 바로 왕이 되어 22년간 통치를 하게 되었다.

다. 모세의 인생

1) 모세는 하셉수트의 양아들이 되어 애굽의 왕자로서 학술과 무술을 연마할 수 있었다(행 7:22).

[행 7:22]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2)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히브리인을 돌아보게 되었다(행 7:23).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볼 때에 그 애굽사람을 쳐죽였다(출 2:11-12).

[행 7:23] 나이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출 2:11]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출 2:12]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3) 이 일이 탄로가 나자 모세는 도망을 쳤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다(출 2:15). 모세의 양어머니 하첩투스의 통치기간이 끝났을 때가 모세의 나이 45세정도 되었을 때였다. 모세가

[출 2:15]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친 때가 그의 나이 40세였으니 만일 모세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모세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성한 투트모세3세는 모세의 살인을 기회로 삼고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도망을 쳐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4)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이 거주하는 곳의 우물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도와주게 되었다(출 2:16-17). 그것이 인연이 되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중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다(출 2:21-22). 모세는 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는데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의미였다. 우리 삶도 타국에서 객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출 2:16]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출 2:17]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출 2:21]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출 2:22]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비록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과는 맞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나마 십보라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3. 모세의 사명

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1)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다(출 3:1).

2)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모세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다.

[출 3:1]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나.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1)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것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출 2:23-25). 하

[출 2:23]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출 2:24]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 2:25]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놀려고 우리를 만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항상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2)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하셨다(출 3:10).

3)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 들은 모세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출 3:11).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출 4:11-12).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모세의 부정적인 반응은 우리의 반응과 똑 같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는 자기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명이 가능해진다. 자기자신을 바

[출 3: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11]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 4: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출 4: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보면 누구라도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

[출 5: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 5:2]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4.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가. 애굽의 10가지 재앙

1) 바로 왕은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출 5:1-2).

	재 앙	깨뜨려진 이집트의 신들	관련성구
1	물이 피로 변함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Khnum) 하피(Hapi)	출 7:14-25
2	개구리	부활과 다산(多産)신 헤크트(Heqt, 크눔의 부인)	출 8:1-15
3	이	흙의 신 셉(Seb), 곤충의 신 케퍼(Kheper)	출 8:16-19
4	파리	파리의 신 바알세붑(Beelzebub, 에그론 도시도 이 신을 섬겼다)	출 8:20-32(마 12:24)
5	가축의 약질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Apis, 내세를 약속했다)와 므네비스(Mnevis), 암소의 수호신 하도르(Hathor)	출 9:1-7
6	독종	주술과 치료의 신 토트(Thoth)	출 9:8-12
7	우박	창공의 여신 누트(Nut), 대기(大氣)의 신 수(Shu)	출 9:13-35
8	메뚜기	곡물의 신 셋(Seth),	출 10:1-20
9	암흑	태양의 신 라(Ra), 태양의 여신 세케트(Sekhet)	출 10:21-29
10	초태생의 죽음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Osiris),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Isis), 지상의 태양신 바로(Pharaoh)	출 11:4-12:30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3) 불가능해 보였던 출애굽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현실로 이뤄졌다. 비록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나. 10가지 재앙의 종류

1) 애굽에 내린 재앙은 모두 10가지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린 계명도 십계명이 중요하다. 십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도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됨을 암시한다.

2)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모두 우상에 대한 형벌이었다.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우리도 우상을 섬기면 애굽처럼 망하게 된다.

5. 출애굽 경로

1) 라암셋에서 떠나 숙속에 진을 쳤다(출 12:37-13:19).

2) 숙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위치한 에담에 장막을 쳤다(출13:20-22).

[출 12: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출 13:20] 그들이 숙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3)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쳤다(출 14:2).

4) 홍해바다를 건넜다(출 14:21-22).

5)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3일을 걸어 마라에 도착했다(출 15:22-23).

6) 엘림에 이르니 그곳에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출 15:27).

7) 엘림을 떠나 엘리와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때가 출애굽한지 한 달째였다(출 16:1). 이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만나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다(출 16:25-27).

8)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다(출 17:1). 이곳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여 승리했다.

9) 르비딤을 떠나 시내광야에 이르렀다(출

[출 14:2]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출 14: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 14: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출 15: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 15: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출 15: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칠십 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 16: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이월 십오일이라

[출 16:25]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출 16:26] 육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칠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출 16:27] 제칠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출 17: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19:1-2). 출애굽한지 한달 보름만에 시내광야에 도착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받았다. 이곳에서 거의 11개월동안을 시내산에서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성막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출 19: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삼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 19: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10) 다음해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민 10:11-12).

[민 10:11] 제이년 이월 이십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민 10:12]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11) 바란광야의 다베라에 진을 쳤다(민 11:3). 이곳에서도 거의 1개월동안 메추라기가 임했다. 만나는 쉼없이 40년동안 내렸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세상의 정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앙이 임했다(민 11:33-34).

[민 11:33] 고기가 아직 잇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민 11:34]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12) 다베라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다(민 11:35).

[민 11:35]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13) 하세롯에서 가데스로 나아가 진을 쳤다

(민 12:16). 이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을 파송했다(민 13:1-2).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40년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었다.

14) 가데스에서 호르산에 이르렀다(민 20:22). 이곳에서 아론은 죽게 되었다.

15) 호르산에서 홍해 길로 좇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였다(민 21:4). 백성이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불뱀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다.

16) 에돔 땅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이예아바림에 진을 쳤으며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다(민 21:10-13).

17) 아르논을 떠나 브엘에 진을 쳤다(민 21:16).

18) 브엘을 떠나 맛다나에 이르렀고 그곳을 떠나 나할리엘에 진을 쳤고 그곳을

[민 12:16]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민 1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3:2]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민 20:22]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 산에 이르렀더니

[민 21: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좇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 21:10]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 쳤고 [민 21:11]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 돋는 편 광야 이예아바림에 진 쳤고 [민 21:12]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 쳤고 [민 21:13]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민 21:16]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민 21:18]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떠나 비스가 산꼭대기에 진을 쳤다(민 21:18-20). 이곳에서 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하고 아모리 인의 모든 성읍을 취하였다. 또한 바산 왕 옥을 격파하였다.

19)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한 뒤에 모압평지에 진을 쳤다(민 22:1).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민 21:19]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민 21:20]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민 22: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4 장

/

광야
시대

제 4 장 광야시대(출애굽기 ~ 신명기)

1. 율법 제정

계명			
	내용	성경구절	성경구절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3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4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사용치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 20:7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 20:8
인간에 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12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 20:13
	순결하게 살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 20:14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출 20:15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 20:16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 20:17

가. 시내산에서의 훈련 (출 19-40장, 레위기, 민 1-9장): 대략 11개월 정도 시내산에 체류한다. 만 2개월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출 19:1) 그곳에서 11개월 정

[출 19: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삼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민 10:11] 제이년 이월 이십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도 체류하다가 만 13개월째에 바란광야로 떠났다(민 10:11).

나. 이 곳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았으며, 성막을 제작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계명들로 대부분 이뤄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평안해지고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분야	내 용	관 련 성 구
생명존중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기하고 소중한 것임	출 20:13; 21:16-21,26-31; 레 19:14; 신 5:17; 24:7; 27:18
모함금지	모든 사람은 무고(誣告)와 중상 모략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출 20:16;23:1-3; 레 19:16; 신 5:20; 19:15-21
여성지위 보 호	여성은 신체적, 기능적 연약성 및 종속적인 사회 구조적 지위 등의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여선 안된다.	출 21:7-11,20,26-32; 22:16,17; 신 21:10-14; 22:13-30; 24:1-5
형벌 적절성	범죄나 과실에 따른 형벌은 형평(衡平)을 넘어서서는 안되며 인격 모독적인 것이어서도 안됨	신 25:1-5
인권보장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인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받아야 함	출 21:2,5,6; 레 25; 신 15:12-18
주거자유	이스라엘인은 하나님께서주신 기업(基業) 가나안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레 25; 민 26:5-7; 36:1-9; 신 25:5-10

사유재산 보 장	사유(私有) 재산의 획득과 사용의 권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한다.	출 20:15; 21:33-36; 22:1-15; 23:4,5; 레 19:35,36; 신 5:19; 22:1-4; 25:13-34
정당한 임금	누구든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레 19:13; 신 24:14; 25:4
생존권 보장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사회 전체가 생존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출 23:10,11; 레 19:9,10; 23:22; 25:3-55; 신 14:28,29; 24:19-21
휴일보장	남종이나 여종, 여행객도 안식일에는 일을 해선 안된다.	출 20:8-11; 23:12; 신 5:12-15
혼인관계 보장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로 거룩한 것이며 그 자신 및 어떤 타인에 의해서도 침해되서는 안된다.	출 20:14; 레 18:6-23; 20:10-26; 신 5:18; 22:13-30
약자보호	가난하고 빈천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된다.	레 19:14,15,33,34; 25:35,36; 신 1:17; 10:17,18; 16:18-20; 17:8-13; 19:15-21
재판 청구권	누구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출 23:6,8; 레 19:15; 신 1:17; 10:17,18; 16:18-20; 17:8-13; 19:15-21
법적평등	만인(萬人)은 법 앞에서 평등함	신 17:18-20
자연보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일반 은총은 모든 피조물에 미치니 자연도 역시 보호되어야 함	출 23:5,11; 레 25:7; 신 22:4,6,7; 25:4

2. 성막을 통한 이스라엘의 광야여행

가.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구축했습니다.(민 2:2)

1) 동쪽(민 2:3): 유다지파(선임), 잇사갈지파, 스블론지파
2) 서쪽(민 2:18): 에브라임지파(선임), 므낫세지파, 베냐민지파
3) 남쪽(민 2:10): 르우벤지파(선임), 시므온지파, 갓지파

[민 2:2]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민 2:3] 동방 해 돋는 편에 진 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 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민 2:18]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 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민 2:10] 남편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 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4) 북쪽(민 2:25): 단지파(선임),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민 2:25]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나.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는 성막에 가까이 레위지파 자손들이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1) 동쪽(민 3:38):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진을 쳤음.
2) 서쪽(민 3:23): 게르솜의 자손들이 진을 쳤음
3) 남쪽(민 3:29): 고핫 자손들이 진을

[민 3:38]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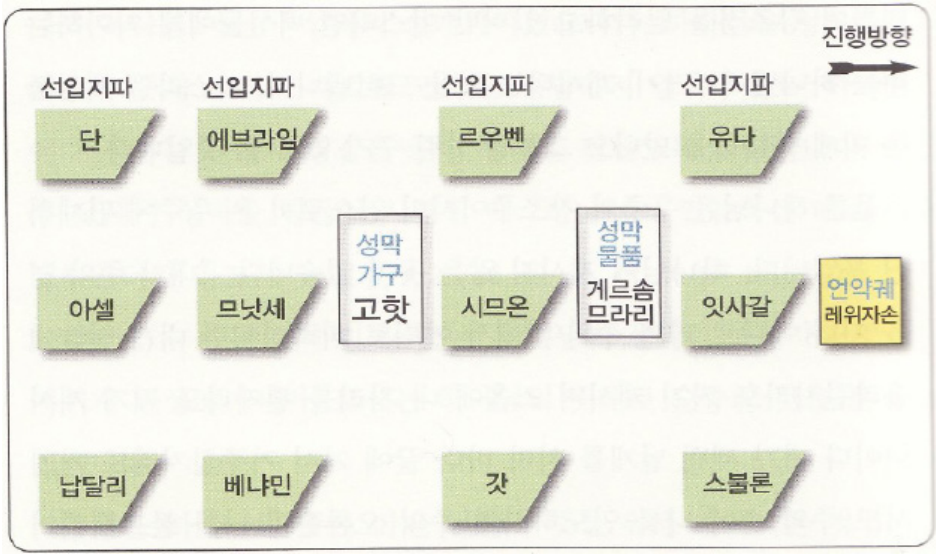
[민 3:23]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민 3:29]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쳤음

4) 북쪽(민 3:35): 므라리 자손들이 진을 쳤음

[민 3:35]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므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할 때에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4개의 진영으로 구분하시고 1진영부터 순서대로 행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1) 제1진영: 유다지파(선임), 잇사갈지파, 스블론지파
2) 제2진영: 르우벤지파(선임), 시므온지파, 갓지파
3) 제3진영: 에브라임지파(선임), 므낫세지파, 베냐민지파
4) 제4진영: 단지파(선임),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다. <u>레위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보다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u>

1) 이는 레위지파 자손들은 군대가 이르기 전에 먼저 성막을 세웠기 때문입니다.(민 10:21)
2)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막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이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입니다.

[민 10:21]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3. 이스라엘의 제사(레위기 1 –17장)

제사의 목적에 따른 구분						
	성격	목 적	특 징	의 미	그리스도와의 관계	관련성구
번 제	자원 및 의무	일상의 신앙 고백과 경배	흠없는 제물을 준비,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림	헌신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함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헌신의 모범	레 1:3-17, 레 6:8-13, 롬 12:1,2, 빌 2:5-11
소 제	자원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바치는 표. 순수하고 온전한 순종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로서 고운 곡식 가루를 기름, 유향, 소금 등과 섞어 불살라 드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식함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	레 2:1-16, 레 9:16-17, 히 4:15, 계 12:11
화목제	자원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를 위해	제사후 경배자도 제물을 분배받음. 드리는 동기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구분됨.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친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레 3:1, 레 7:12-16, 롬 5:1, 골 1:20
속죄제	의무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 받기 위해	각 사람의 신분, 지위(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 극빈자)에 따라 제물이 다름	*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됨 * 죄의 치명적 결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임	레 4:1-22, 레 8:14-17, 요 1:29, 요일 1:7
속건제	의무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관계에 놓이게 한 죄의 해결 및 보상	범죄한 대상(하나님,사람)에 따라 제물이 다르며, 범한 물건의 1/5을 더 냄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함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치명적인 파괴성을 제거함	레 5:1-4, 레 5:,16, 레 7:1-7, 사 53:4-6, 벧전 2:21-24

제사의 방법에 따른 구분				
	제사법	해당제물	해당제사	예표적 의미
화제	경배자가 가지와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고 다듬은 희생 제물을 단위에서 불사름 (레 1:6-9; 3:3-9). 이때 그 피는 성막 기구 및 번제단 주위에 뿌림	흠없는 수소, 암소, 숫양, 암양, 숫염소, 암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고운 곡식 가루, 기름, 유향 등의 모든 제물 (레 1:3-14, 2:1-2, 3:1-12, 4:23-28)	*번제 (출 29:18-25, 레 1:9-17) *소제 (레 2:1-16) *화목제 (레 3:3-9) *속죄제 (레 5:12) *속건제 (레 6:17-18)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상징함 (요 1:29-36; 고후 5:21)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속죄를 위해 피흘리심을 상징함 (마 26:28; 히 9:12-14)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상신의 생명 전체를 바쳐 희생당하심을 상징함 (마 27:27-50)
요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의 가슴 및 곡식단을 높이 들어 앞뒤로 흔들어 바침 (출 29:24-26)	화목 제물의 가슴, 첫 곡식 단(레 23:15), 첫 이삭의 떡 (레 23:20), 레위인 (민 8:11-15)	*화목제 (레 7:30) *속건제 (레 14:12-14) *땅의 처음 익은 곡식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짐을 의미함 (골 1:22, 히 9:24,25)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주어지심을 상징함 (요 6:33-58, 롬 8:32)
거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 희생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높이 쳐들어서 위아래로 흔듦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 타작 마당의 곡식, 십일조, 포도주, 기름 등 (레 7:32; 민 15:20)	*화목제 (레 7:14-22) *땅의 첫 소산물을 드릴 때 *십일조를 드릴 때 *전리품을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짐을 의미함 (골 1:22, 히 9:24,25)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주어지심을 상징함 (요 6:33-58, 롬 8:32)
전제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 드림 (민 28:7)	포도주, 독주 (레 23:13; 민 28:7)	*번제 (출 29:40-41) *소제 (레 23:13) *화목제 등 (레 23:19)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봉사하심을 상징 (마 26:38-4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다바져 충성하심을 상징 (마 27:46-51)

5 장

/

정복

시대

제 5 장 정복시대(여호수아서)

1. 여리고 점령 (여호수아 1-6장):

1) 길갈의 할례: 하나님은 길갈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였다(수 5:2). 이는 적군에 가로쌓여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행하는 것이기에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납득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기란 참으로 어렵지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수 5:2]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2) 여리고 성의 함락: 단지 함성에 의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수 6:20). 하나님의 음성은 이처럼 파워가 있다. 우리의 기도소리는 그 어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한다.

[수 6:20]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3. 아이성 사건(여호수아 7-8장):

1) 아이성의 실패는 아간의 죄로 인함이다(수 7:11-13).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다. 죄로 인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

2) 가장 함락하기 쉬운 성이지만 가장 힘들게 정복했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큰 곤욕을 치루게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수 7:11]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수 7: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수 7:13]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3. 가나안 전역 정복 (여호수아 9-24장):

1) 가나안 1차 정복기간 때 기업을 취한 지파는 겨우 5개 지파 뿐이다(르우벤지파, 갓지파, 므낫세지파, 에브라임지파, 유다지파). 이 중에서 세 지파(르우벤지

파, 갓지파, 므낫세지파)는 모세에 의해 기업을 취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는 겨우 2개 지파(에브라임지파, 유다지파)만 기업으로 취했을 뿐이다.

2)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분배를 받지 못한 일곱지파 족장에게 그들이 취할 땅을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명하였고 그들이 땅을 취하도록 축복했습니다(수 18:9-10). 일곱지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냐민지파, 시므온지파, 스블론지파, 잇시갈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단지파.

[수 18:9]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수 18:10]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수11:23).

6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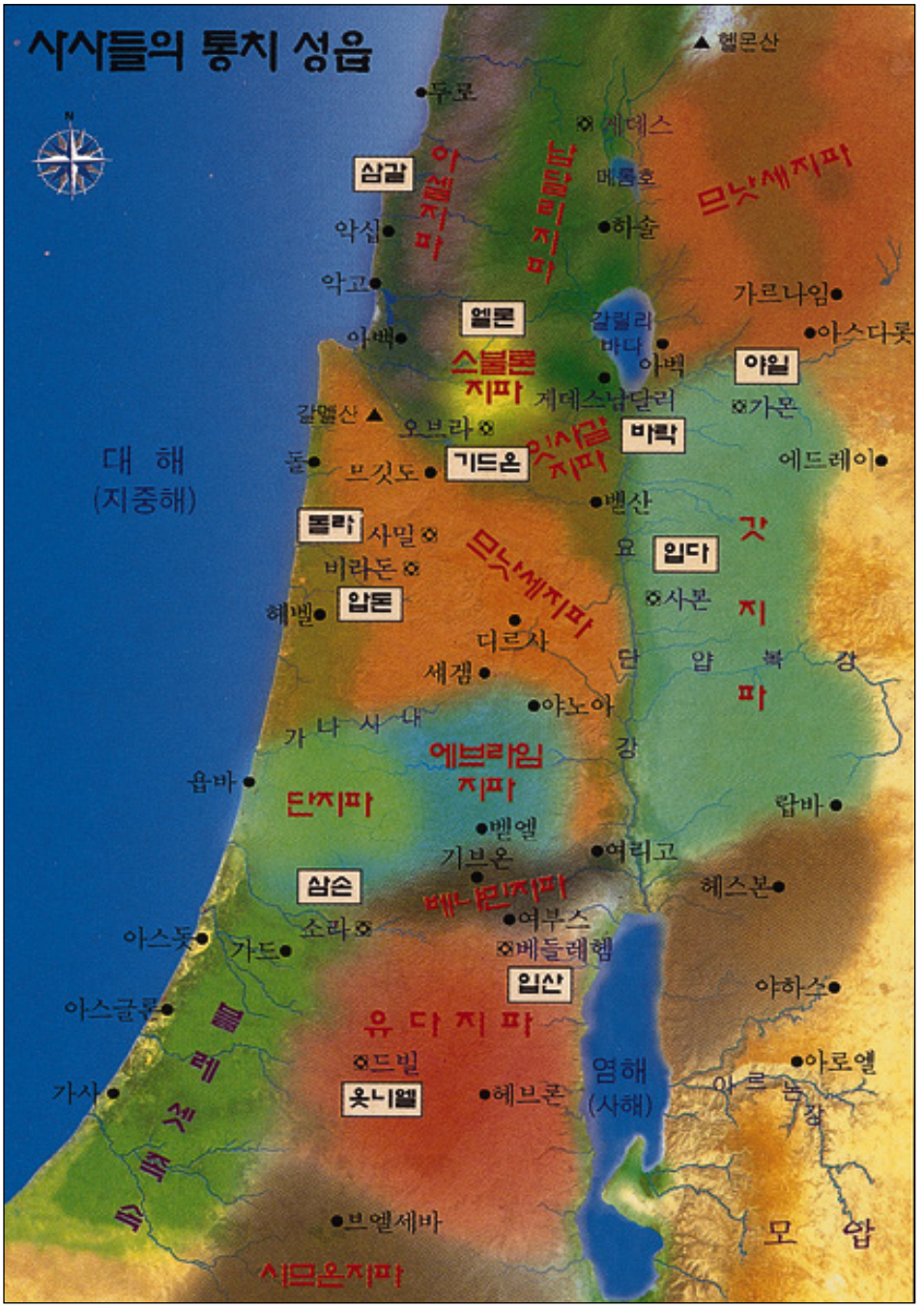
사사

시대

제 6 장 사사시대(사사기)

1. 사사: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가족세습은 안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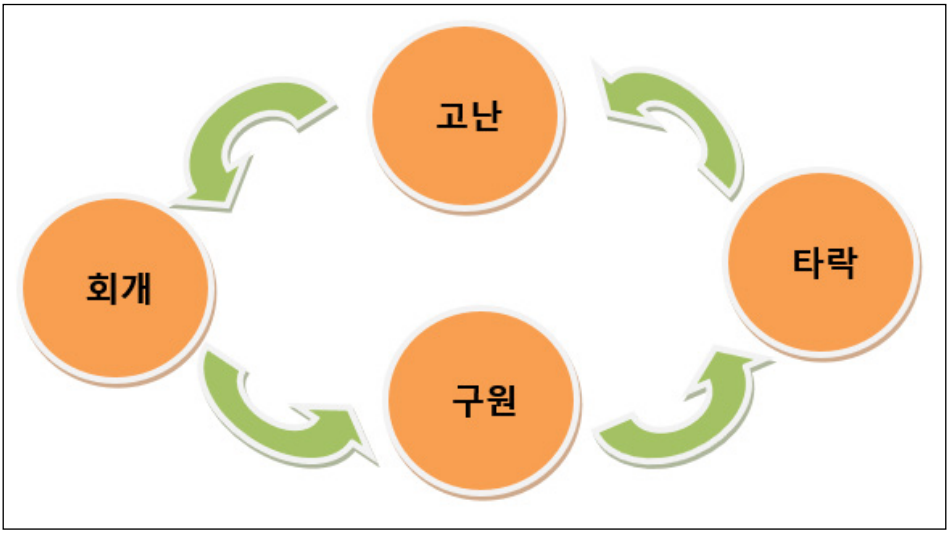
	출신지파	대 적	속박기간	평화기간	특 징
옷니엘 (B.C1383-1335)	유 다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8(년)	40(년)	갈렙의 조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 (3:9-11)
에 훗 (1316-1236)	베냐민	모압 왕 에글론	18(년)	80(년)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로 에글론을 암살함 (3:12-30)
삼 갈 (1260-1250)	?	블레셋			아낫의 아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인을 물리침 (3:31)
드보라 (1216-1176)	에브라임	가나안 왕 야빈	20(년)	40(년)	여사사, 바락과 협력하여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물리침 (4:4-5:31)
기드온 (1169-1129)	므낫세	미디안	7(년)	40(년)	삼백명의 용사로 승리를 거둠. 바알의 단을 헤파하여 '여룹바알(바알과 싸우는 자)'이란 별명을 얻음. 만년에 '에봇'을 우상화 하고 70명의 아들을 두어 큰 혼란을 야기시킴 (6:11-8:35)
돌 라 (1120-1097)	잇사갈			23(년)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10:1,2)
야 일 (1120-1098)	므낫세 (길르앗)			22(년)	아들 30 과 30 성읍을 둠 (10:3-5)
입 다 (1085-1079)	갓 (길르앗)	암몬	18(년)	6(년)	기생의 아들, 큰 승리를 얻었으나 그릇된 서원을 하여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 (11:1-12:7)
입 산 (1079-1072)	유 다 (베들레헴)			7(년)	아들 30 을 두어 그들을 위하여 타국의 30 여자를 데려오고, 딸 30 을 타국으로 시집보냄 (12:8-10)
엘 론 (1062-1055)	스불론			10(년)	10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림 (12:11,12)
압 돈 (1062-1055)	에브라임			8(년)	아들 40 과 손자 30 이 70 필의 나귀를 탐 (12:13-15)
삼 손 (1075-1055)	단	블레셋	40(년)	20(년)	나실인, 성결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 머리를 잘리움. 죽을 때에 수많은 블레셋인을 죽임 (13:2-16:31)


사사들의 통치 성읍
헬몬산
두로
게데스
삼갈
아셀지파
남달리지파
메롬호
므낫세지파
악십
하솔
악고
가르나임
엘론
갈릴리바다
아스다롯
아백
스불론지파
아벡
야일
게데스남달리
가몬
갈멜산
오브라
잇사갈지파
바락
대 해
(지중해)
돌
므깃도
기드온
에드레이
벧산
돌라
사밀
요
입다
갓
비라돈
므낫세지파
사본
헤벨
압돈
지
디르사
단
얍
복
강
세겜
파
야노아
가
나
사
내
강
에브라임지파
욥바
단지파
랍바
벧엘
여리고
기브온
삼손
헤스본
베냐민지파
여부스
소라
아스돗
가드
베들레헴
입산
야하수
아스글론
유다지파
블레셋족속
드빌
염해
(사해)
아로엘
가사
옷니엘
헤브론
아르논
강
브엘세바
모
압
시므온지파

2. 영적 악순환:

타락, 고난, 회개, 구원의 주기가 400년동안 반복되었다(사사기 1-6장). 타락할 때 고난이 닥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복이 많을 때 다시 타락의 길을 걷는 영적 악순환이 우리의 삶에도 존재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잠 30:9).

[잠 30: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7 장

/

통일왕국 시대

제 7 장 통일왕국시대

1. 통일왕국시대의 세 왕

가. 사울:

1) 이스라엘의 초대왕(사무엘상 8-31장)으로 40년을 통치했다.
2)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
   - 제사장 고유영역을 무시했다(삼상 13장)
   -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삼상 15장)
   -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람(사무엘)에게 죄의 용서함을 구했다(삼상 15장).

나. 다윗:

1) 이스라엘의 두번째왕 (삼상 15-삼하 24장)으로 40년을 통치했다.
2)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이유:
   -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

렸음(다윗의 장막과 언약궤 안치)

-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시 51장)

다. 솔로몬:

1) 이스라엘의 세번째왕(왕상 1-11장)으로 40년을 통치했다.
2)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 하지만 말년에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함으로써 통일왕국이 분열되고 말았다.

8장

/

분열왕국 시대

제 8 장 분열왕국시대

1. 북왕국과 남왕국의 비교

가. 북왕국 (왕상 1장 – 왕하 17장)

- 영토가 남쪽보다 넓다(9지파 반)
- 영적으로 남왕국보다 더 타락했다
- 여러보암(북왕국의 첫번째 왕)의 영적타락: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움
-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숭배를 허용했다.
- 여러차례(6-7번) 혁명을 통해 정권이 이양됐다.
- 250년간 통치후 722년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다 (왕하 17:22-23).

나. 남왕국 (왕상 15장 – 왕하 25장)

- 북왕국보다 작았다(2지파 반)
- 종교개혁을 통해 우상숭배를 타파했던 왕들: 히스기야, 요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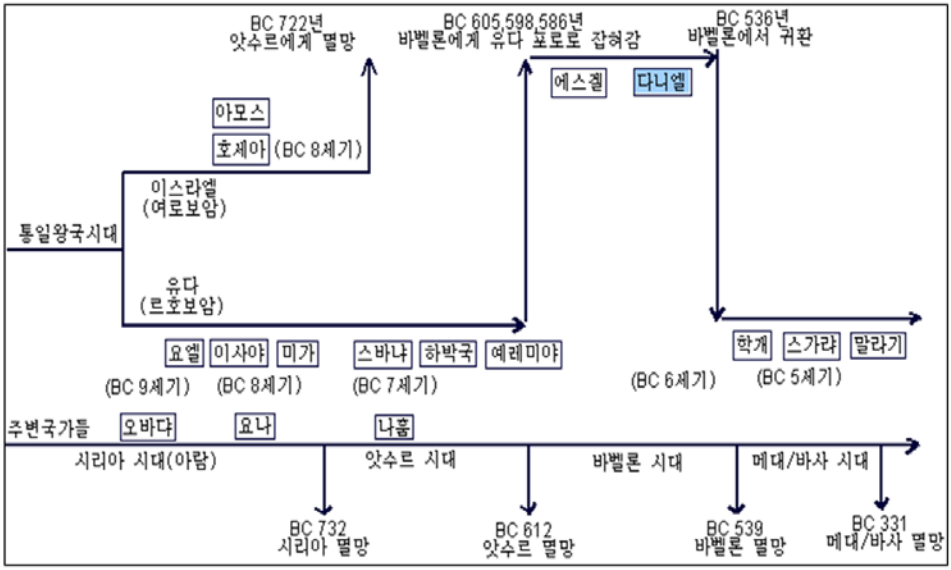
- 400년 통치 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

2. 왕국분열의 이유

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분열 초래 (왕상 11-14장)

나. 유다지파의 주도적인 통치에 따른 다른 지파의 반발

다. 르호보암(솔로몬의 아들)의 정치적인 미숙함



북이스라엘의 역대왕

번호	왕이름	통치기간 (정통견해BC)	즉위 나이	통치 기간	통치 평가	지파	사망형태	남북 관계	관계된 성경	
									열왕기상하	역대하
1	여로보암	931~910		22	악행	에브라임	하나님이 치심	전쟁	11:26~14:20	9:29~13:22
2	나답	910~909		2	악행	잇사갈	바아사에게 살해	전쟁	15:25~28	
3	바아사	909~886		24	악행		자연사	전쟁	15:27~16:7	16:1~6
4	엘라	886~885		2	악행	베냐민	시므리에게 살해	전쟁	16:6~14	
5	시므리	855		7일	악행		포위되어 자살	전쟁	16:9~20	
6	오므리	885~874		12	악행		자연사	전쟁	16:15~28	
7	아합	874~853		22	악행		전쟁에서 부상	동맹	16:28~22:40	18:1~6
8	아하시야	853~852		2	악행		떨어져 죽음	화평	22:40~1:18	20:35~37
9	여호람	852~841		12	악행	유다	예후에게 살해	동맹	3:1~9:25	22:5~7
10	예후	841~814		28	악행	유다	자연사	전쟁	9:1~10:36	22:7~12
11	여호아하스	814~798		17	악행	유다	자연사	화평	13:1~9	
12	여호아스	798~782		16	악행	유다	자연사	전쟁	13:10~14:16	25:17~24
13	여로보암2	793~753		41	악행	유다	자연사	화평	14:23~29	
14	스가랴	753~752		6월	악행	유다	살룸에게 살해	화평	14:29~15:12	
15	살룸	752		1월	악행		므나헴에게 살해	화평	15:10~15	
16	므나헴	752~742		10	악행		자연사	화평	15:14~22	
17	브가히야	742~740		2	악행		베가에게 살해	화평	15:22~26	
18	베가	752~731		20	악행		호세아에게 살해	전쟁	15:27~31	28:5~8
19	호세아	731~722		9	악행			화평	15:30~17:6	

남유다의 역대왕

번호	왕이름	통치기간 (정통견해BC)	즉위 나이	통치 기간	통치 평가	지파	사망형태	남북 관계	관계된 성경	
									열왕기상하	역대하
1	르호보암	931~913	41	17	악행	유다	자연사	전쟁	11:42~14:31	9:31~12:16
2	아비얌	913~911		3	악행	유다	자연사	전쟁	14:31~15:8	13:1~22
3	아사	911~870		41	선행	유다	자연사	전쟁	15:8~24	14:1~16:14
4	여호사밧	873~848	35	25	선행	유다	자연사	화평	22:41~50	17:1~20:37
5	여호람	853~841	32	8	악행	유다	하나님이 치심	화평	8:16~24	21:1~20
6	아하시야	841	22	1	악행	유다	예후에게 살해됨	동맹	8:24~9:29	22:1~9
7	아달랴	841~835		6	악행	?	살해됨	화평	11:1~20	22:1~23:21
8	요아스	835~796	7	40	선행	유다	신복에게 살해됨	화평	11:1~12:21	22:10~24:27
9	아마샤	796~767	25	29	선행	유다	살해됨	전쟁	14:1~20	25:1~28
10	웃시야	792~740	16	52	선행	유다	하나님이 치심	화평	15:1~7	26:1~23
11	요담	750~732	25	16	선행	유다	자연사	전쟁	15:32~38	27:1~9
12	아하스	732~716	20	16	악행	유다	자연사	전쟁	16:1~20	28:1~27
13	히스기야	716~687	25	29	선행	유다	자연사		18:1~20:21	29:1~32:33
14	므낫세	687~643	12	55	악행	유다	자연사		21:1~18	33:1~20
15	아몬	643~641	22	2	악행	유다	신복에게 살해됨		21:19~26	33:21~25
16	요시야	641~609	8	31	선행	유다	전쟁에서 부상됨		22:1~23:30	34:1~35:27
17	여호아하스	609	23	3월	악행	유다	애굽에 잡혀감		23:31~33	36:1~4
18	여호야김	609~598	25	11	악행	유다	포위된 때 죽음?		23:34~24:7	36:5~8
19	여호야긴	598~597	18	3월	악행	유다	바벨론에 잡혀감		24:6~16	36:9~10
20	시드기야	597~586	21	11	악행	유다	바벨론에 잡혀감		24:17~25:30	36:11~21

남북 왕국의 분열(BC928년)
페니기아
시리아
(아람)
대 해 (지중해)
갈릴리 바다
이 스 라 엘
암 몬
블레셋
유 다
염 해
(사해)
모 압
아 말 렉
20km
0

9장

/

포로 시대

제 9 장 포로시대

1. 포로 과정의 역사

가.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B.C.722년에 멸망을 당하였다.

1) 그 결과로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람들(주로 가난한 사람들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만 남겨두고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끌려갔다.

2) 앗수르제국은 포로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했다. 이는 저들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함이었다.

나.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였다.

1) 남왕국은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2) 바벨론제국은 앗수르제국과는 달리

포로들을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함께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순서	연대(B.C.)	이스라엘 왕	정복국의 왕	관련 사실	관련성경
북 왕국	1 차	739-732 년	베 가	디글랏빌레셀 3 세	포로자의 수나 유베지를 알 수 없음	왕하 15:29; 16:9
	2 차	725-722 년	호 세 아	살만에셀 5 세 사르곤 2 세	남자만 약 27,290 명이 포로되어 감	왕하 17:5-6
남 왕국	1 차	605 년	여호야김	느부갓네살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 계급	왕하 24:1; 단 1:6
	2 차	597 년	여호야긴	느부갓네살	야호야긴 왕과 방백들 군사 1 만, 많은 기술자	왕하 24:10-17
	3 차	586 년	시드기야	느부갓네살	시드기야 왕과 왕자들, 빈천한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포로됨	왕하 25:1-25 렘 25:9-11

10 장

/

포로귀환 시대

제 10 장 포로귀환시대

1. 바사제국의 고레스왕에 의해 내려진 칙령:

가. 고레스왕은 "모든 백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하라"고 선포하였다(대하 36:22-23, 스 1:1-3).

나.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왕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롬 9:17).

2. 3차에 의한 예루살렘의 귀환(에스라1장, 느헤미야2장)

[대하 36:22]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대하 36:23]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 1:1]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라 1:2]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 1: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허락된 유대 백성은 모두 3차에 거쳐 고국 땅으로 귀환한다. 일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귀환대열에 포함되었다(렘 30:3).

나.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허락된 유대 백성은 3차에 거쳐 귀환하고서 성전과 성벽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

[롬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렘 30: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 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도자	바사왕	조서내용	귀환자 수	사건 및 업적
1 차 B.C.537 년	스룹바벨 (세스바살) 예수아	고레스	포로인 자유 귀향 허가, 성전 재건 허용, 성전 기구 반환, 성전 건축을 위해 국고로 지원함	일반백성: 42,360 명 노 비: 7,337 명 노래하는자: 200 명 합 계: 49,897 명	성전 재건 완공(B.C.516 년), 재건 도중 사마리아의 방해로 약 18 년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됨, 장막절 준수, 각종 제사드림 (스 1:1-6:22)
2 차 B.C.458 년	에스라	아다사스다 1 세	포로인 자유 귀향 허가, 국고로 추가 지원, 고나리 조직 허용	남 자: 1,496 명 레 위 인: 38 명 수 종 자: 200 명 합 계: 1,754 명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남,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함 (스 7:1-10:44)
3 차 B.C.444 년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1 세	예루살렘 성 재건 허가, 건축 자료 지원	기록이 없음	산발랏, 도비야 등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 일만에 성벽을 중건, 봉헌함 (느 1:1-13:31)

3. 성전 재건(에스라 3-6장)

1차 포로귀환때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선지들의 지도로 성전재건이 시작됨(이때 재

건된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름)

4. 영적 재건(에스라 7-10장, 느헤미야 7-10장)

가. 2차 포로귀환한 에스라(제사장, 학사)를 통해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율법을 가르침(회개를 통해 백성들을 정결케 함).

나. 3차 포로귀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회개운동이 일어났다(안식일의 법을 지키게 함,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목회자 정결케 함).

5. 성벽 재건(느헤미야 1-6장)

3차 포로귀환한 느헤미야(아닥사스다 왕의 술잔맡은 신하)는 유대총독으로 부임하고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다(52일만에).

시온으로의 귀환(BC538~445년)
페
르
시
아
다소
갈그미스
하란
니느웨
알렙포
답사
하맛
유프라테스강
앗수르
티그리스강
엑바타나(악메다)
비블로스
다드몰
레셉
두로
다메섹
에스라가 위험을 무릅
쓰고 빠른 길을 선택함
십팔
바벨론
느헤미야
수사
예루살렘
닙푸르
포로된 유다인들이
닙푸르 주위에 모여삼
두미
우르
남쪽 국경선
1차 귀환로(세스바살과 스룹바벨):BC537~515년
2차 귀환로(에스라와 느헤미야):BC457~428년

구약개론반 교재

초판발행 2018. 6. 10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더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을 위한

국제신학교
www.WSLseminary.org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사역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고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목회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고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고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고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며 세계성막기도선교회 반장의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www.wslseminary.org(한국어버전 있음)
- 문의: 손에스더목사(010-3909-8844)
- 접수처: www.wslseminary.org/apply_kor.html
- 이메일: mail@wslseminary.org